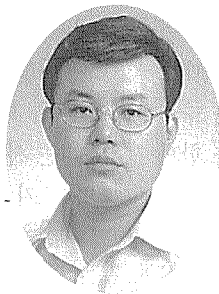


자동차수 증가에 따른 연료유소비와 주유소수 변화추이



최종호

<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

드디어 우리나라도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았다. 자동차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정유산업의 관련 부문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협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1980년 이후 자동차 관련 부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서 17년 동안의 석유산업을 반추해 본다.

드디어 자동차 천만대 시대로

먼저 인구나 GNP 상승에 따른 자동차수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자.

인구, GNP, 자동차수 증가추이

	단위	1980	1985	1990	1995	1997.6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인 구	천명	37,436	40,448	43,411	44,606	
G N P	십억원	36,857	79,301	178,262	348,284	
자 동 차	천대	528	1,113	3,395	8,469	9,965
승용차	천대	249	557	2,075	6,006	7,220
기타차	천대	279	556	1,320	2,463	2,745
대당인구	명	71	36	1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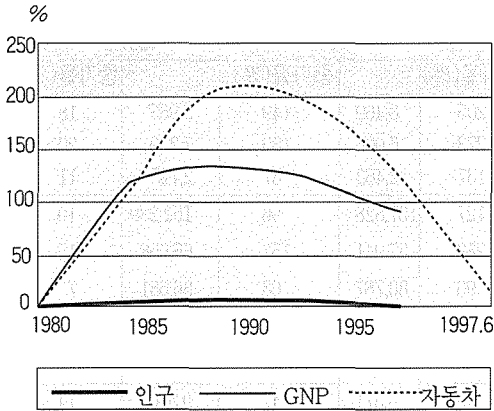
<자료> 199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국정신문, 1997. 7.14자.

주 1) 인구는 총조사인구, GNP는 경상, 자동차는 등록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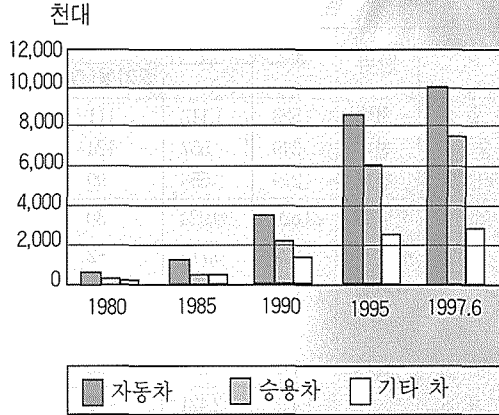
2) 기타차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임.

3) 대당인구는 자동차 1대당 인구수임.

인구, GNP, 자동차 증가율 추세



차종별 자동차 증가 추세



도표의 비교기준은 대략적인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80년 이후 95년까지 5년마다 당해 년도의 수치와 최근의 공식자료가 나와 있는 97년 6월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선 그래프상에서의 5년 단위의 추세선은 매년의 기록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인구는 85년 40,448천명으로 80년 대비 8%, 90년에는 43,411천명으로 85년 대비 7%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95년에는 44,606천명으로 90년 대비 3%로 그 증가세가 한층 둔화되었다. 반면 GNP는 85년 79,301십억원으로 115%, 90년에는 178,262십억원으로 125%로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고 95년에도 348,284십억원, 95%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대수는 85년 1,113천대로 11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90년에는 3,395천대 205%, 95년 8,469천대 149%라는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완만하나마 계속되어 97년 6월 9,965천대를 기록, 드디어 자동차 천만대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자동차 1대당 인구수도 매 5년마다

거의 60%씩 (85년 49%, 90년 65%, 95년 59%) 줄어들어 95년에는 인구 5인당 자동차 1대씩을 가지는 마이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차종별로 자동차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승용차가 85년까지 124%의 높은 증가세가 90년 273%, 95년 189%라는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자동차대수의 상승을 주도하였고 기타차도 85년 99%, 90년 137%, 95년 87%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이를 뒷받침했다. 승용차와 기타차의 구성비면에서는 85년 기타차가 53%로 약간의 우위를 점하였으나 80년에는 50%로 같아졌고, 90년에는 승용차가 61%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그 구성을 역전시켰다. 95년에는 71%로 그 차이를 더욱 늘렸고 97년 6월에는 승용차가 72%를 차지하면서 7,220천대에 이르렀다.

가격 보다는 대수의 증가가 소비 주도

다음으로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연료유가격이 연료유 소비 및 주유소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였는지 알아보자.

자동차, 연료유, 주유소의 증가추이

	단위	1980		1985		1990		1995		1997.6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자동차	천대	528	1,113	111	3,395	205	8,469	149	9,965	18	
승용차	천대	249	557	124	2,075	273	6,006	189	7,220	20	
기타차	천대	279	556	99	1,320	137	2,463	87	2,745	11	
연료유	천배럴	23,820	30,924	30	70,195	127	137,828	96	152,239	10	
휘발유	천배럴	5,821	5,714	-2	22,178	288	57,041	157	65,658	15	
경유	천배럴	17,999	25,210	40	48,017	90	80,787	68	86,581	7	
휘발유	원/l	581	660	14	384	-42	598	56	676	13	
경유	원/l	179	277	55	179	-35	232	30	294	27	
주유소	개	1,448	2,421	67	3,452	43	8,371	142	9,57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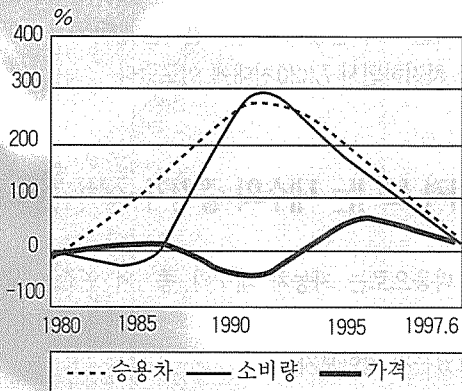
〈자료〉 석유연보, 석유협회 / 석유소비실적, 유개공 / 석유협회보, 석유협회 / 에너지통계월보, 에경연

- 주 1) 휘발유는 자동차용, 경유는 육운용 소비량임.
- 2) 가격은 연초 주유소 판매가격, 95년부터는 연평균 가격임.
- 3) 97.6월의 연료유 소비량 및 가격은 96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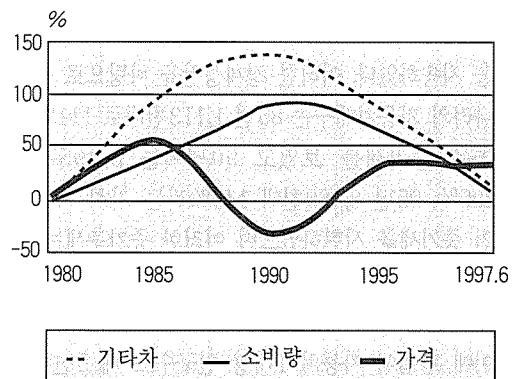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승용차수의 증가와 가격의 하락에 따라 휘발유소비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80년에서 85년까지 124%의 승용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격이 85년에 비해 연차적으로 상승(698원, 740원, 668원, 660원)함으로써 소비가 2% 감소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90년의 휘발유소비는 폭발적인 승용차수 증가(273%)와 함께 가격이

660원에서 384원으로 42% 하락함으로써, 85년 대비 288% 22,178천배럴이라는 경이적인 증가를 기록하였다. 95년에는 가격이 384원에서 598원으로 5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89%라는 높은 승용차수 증가에 힘입어 57,041천배럴 157%의 높은 증가율로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이후 증가세는 1년간 13%의 가격상승과 20% 이하의 승용차수 증가와 어우러져 96년 13% 65,658천배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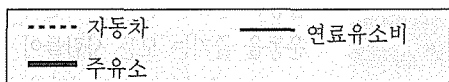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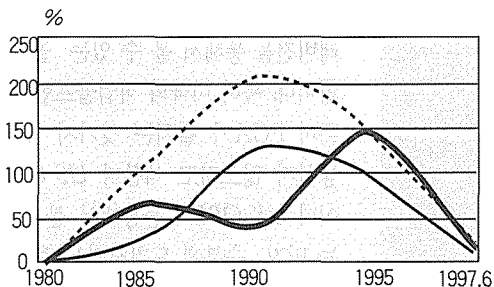
휘발유가격과 소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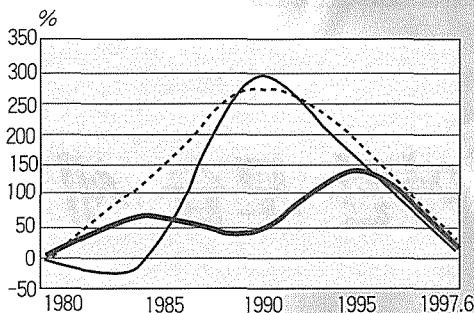
경유가격과 소비의 상관관계



자동차, 연료유, 주유소의 상관관계



승용차, 휘발유, 주유소의 상관관계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의 상관관계는 휘발유가격의 등락보다는 승용차수의 증가가 휘발유소비의 증가를 주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차와 경유의 관계를 보면, 85년 기타차가 80년대비 99% 증가하였으나, 경유가격이 277원으로 55% 상승하여 경유소비는 40% 증가 25,210천배럴에 머물렀으나, 90년에는 기타차 137%의 대폭 증가와 가격의 35% 하락과 맞물려 경유소비는 48,017천배럴 90%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95년에도 가격의 30%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차의 87% 증가에 힘입어 68% 80,787천배럴의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96년에는 경유가격이 27% 상승 294원에 이르고 기타차의 증가도 11% 이하에 그쳐 경유소비는 7% 증가 86,581천배럴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경유소비는 휘발유와는 달리 기타차 증가 및 가격 등락과 비교적 균등한 상관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M자형의 주유소 증가율

주유소수는 85년 자동차수의 증가 (111%, 1,113천대)와 이에 따른 연료유의 소비확대

(30%, 30,924천배럴)로 80년 대비 67% 증가하여 2,421개소로 늘어났다. 그러나 90년에는 자동차대수가 3,395천대로 205% 증가하고 연료유소비도 70,195천배럴로 127%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수는 3,452개로 43% 증가에 머물렀다. 95년에는 이러한 주유소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라도 하듯 8,371개로 142% 증가하여 지속적인 자동차수 증가 (8,469천대, 149%)와 연료유소비증가 (137,828천배럴, 96%)를 뒷받침했다. 97년 6월까지의 14%로 자동차수의 증가율과 비슷한 궤도를 그리며 9,750개에 이르고 있다.

승용차와 휘발유의 증가에 따른 주유소수의 증가는 앞의 자동차와 연료유에 비해 더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85년까지는 서로 엇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0년에는 승용차 대비 230% 포인트, 휘발유 대비 245% 포인트의 엄청난 증가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95년까지 주유소수가 약 100% 포인트 급속히 증가, 이후 97.6월까지 9,570개 14%로 승용차 및 휘발유의 증가율과 비슷한 궤도를 그렸다. 바꾸어 말하면 승용차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휘발유 수요의 확대가 주유소수의 증가를 이끌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